

세계의 길

세계의 길

VOL.33



현장24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찾아

기획특집
2017년도 단체교섭

KTTU 카툰
2017 단체교섭 합의사항 요약

KTTU 레이더
2017 KT그룹 노사공동 동호회 한마음축제 개최

꽃이 져야 열매가 맛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혀 가을이면 수확하는 다른 과실과 달리
 감귤은 겨울이 시작되는 이맘때 제철을 맞습니다.
 감귤은 과일과 채소가 귀한 겨울철에 훌륭한 비타민 공급원이 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감귤은 조금 늦기 때문에 더욱 고마운 과일입니다.
 모든 결실이 한 때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는 언젠가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12대 집행부는 그동안 자녀 교육 지원, 조합원 및 가족 의료 지원,
 가족 친화 프로그램, 가족 효사랑 휴가, UCC 봉사단, 리프레시 휴직 등
 조합원을 위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의 교육과 의료지원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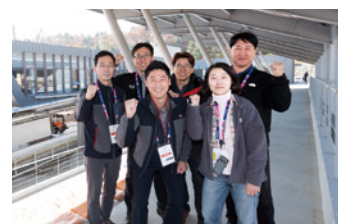
지난 3년 간 노동조합의 희망과 결실을 위해 힘차게 뛰었습니다.
 현장의 고충을 살뜰히 살피며 조합원의 실리와 권익을 위해
 현장과 조합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변함없이 조합원을 위한 새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C o n t e n t s

vol. 33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2017년도 단체교섭
KTTU Mate	12	KT engcore 노동조합 11대 집행부 남우형 위원장
이슈 & 사회	14	노동자 청춘에게 과연 파랑새는 있을까
현장 24시	16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찾아
KTTU 카툰	20	2017 단체교섭 합의사항 요약
KTTU 레이더	22	2017 KT그룹 노사공동 동호회 한마음축제 개최
KTTU 클로즈업	26	뜨겁게 달아오르는 전 세계 시 전쟁
토닥토닥	28	대중문화에 몰아치는 '올로' 바람
길따라 멧따라	30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KT TRADE UNION NEWS

KT노동조합 제13대 위원장 선거결과 발표

KT노동조합 규약 제48조[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36조[당선인 결정]에 의거 KT노동조합 제13대 위원장선거가 11월 17일(금)에 개최됐다. 기호 1번 김해관 후보가 총투표 16,226표 중 11,084표로 68.31%를 득표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KT노동조합 제13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 12개 지방본부위원장 당선인 명단

강북-이희창, 강남-한창성, 서부-문경로, 부산-김석득, 대구-이영태, 본사-정연용, 전남-정광우, 전북-김덕경, 충남-조중오, 충북-정지국, 강원-심우승, 제주-조순호

제13대 지방본부별 지부장 선출결과

강북지방본부(30명)

김재준(강북고객본부)	최종명(파주)	이동철(포천)
박정환(중앙)	박종국(광진)	진정현(구리)
안영환(원호)	이주원(성수)	정성호(남양주)
김동현(서대문)	하태식(종량)	정현근(양평)
전용섭(은평)	김길수(노원)	박철성(강북무선운용센터)
기남로(신촌)	김태운(도봉)	강윤식(서울중부유선운용센터)
이재형(광화문)	손영국(월곡)	김명수(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인윤식(동대문)	김중성(강북)	유지영(경기북부유선운용센터)
이창주(고양)	정병권(의정부)	최호규(IP운용센터)
박종울(덕양)	김산성(동두천)	박근우(강북엔지니어링센터)

강남지방본부(27명)

유병택(가락)	박성순(양재)	박현진(강남고객본부)
유광섭(강남)	오정근(경광주)	이승찬(안성)
박정식(강동)	황윤규(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	지영근(여주)
허정식(강남무선운용센터)	공현배(남수원)	정상철(오산)
전성욱(반포)	이창일(동수원)	김대진(용인)
정차석(서초)	허남일(분당)	김학능(이천)
유병욱(서울강남유선운용센터)	이정형(성남)	김재후(평택)
손등모(송파)	오은호(수원)	이호근(하남)
이성구(신사)	김용배(수지)	남기형(화성)

서부지방본부(33명)

김용철(서부고객본부)	엄금용(대방)	이중보(인천)
김수홍(강서)	최오희(안양)	박은규(연수)
강일모(가양)	임영락(서안양)	박원호(송의)
김해광(목동)	이평수(군포)	김윤철(서인천)
정금철(구로)	김덕기(안산)	이기용(김포)
김영필(금천)	유광림(동안산)	안상호(항동)
한원호(개봉)	허준호(시흥)	윤웅현(강서무선운용센터)
안진홍(영등포)	박성산(부천)	김성만(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
김성배(여의도)	차홍열(북부천)	최화웅(인천유선운용센터)
김상철(동작)	심유선(부평)	박하수(미디어운용센터)
유희수(관악)	김오철(계양)	서정호(강남엔지니어링센터)

부산지방본부(39명)

명창욱(부산고객본부)	이창림(수영)	강동만(진주)
정정석(동부산)	남상길(북부산)	김원용(거제)
김수택(양산)	황일용(김해)	김도형(통영)
박상일(동래)	고정규(구포)	권구호(사천)
이기학(연산)	강준호(창원)	이상인(거창)
김경철(기장)	정성민(마산)	박찬기(산청)
최형진(서부산)	서명구(밀양)	왕용길(부산무선운용센터)
김진용(사하)	박영용(진해)	최영철(부산유선운용센터)
이동수(영도)	윤 해(합안)	김주경(경남유선운용센터)
강호성(남부산)	백한준(울산)	최용석(울산유선운용센터)
송영기(해운대)	임태일(남울산)	유병철(부산엔지니어링센터)
이성철(서면)	김석준(동울산)	이성동(부산국제센터)
김미애(대연)	이식원(안양)	이재수(부산컨설팅)

대구지방본부(27명)

정재윤(대구고객본부)	정영식(서대구)	이찬원(안동)
추교권(동대구)	허운하(북대구)	지병준(영주)
김종우(수성)	정명호(칠곡)	윤원상(문경)
손상학(경산)	김동영(구미)	권오용(청송)
이영택(영천)	박명서(김천)	이종학(대구유선운용센터)
김수영(달서)	천명호(상주)	이준석(동대구유선운용센터)
박순목(남대구)	이성균(포항)	김기섭(경북유선운용센터)
권익수(중대구)	윤웅현(경주)	김경호(대구무선운용센터)
김주혁(달성)	최진환(울진)	김성상(대구엔지니어링센터)

본사지방본부(14명)

이영인(기업고객설팅센터)	김형울(INS본부)	김수진(구매지원센터)
최종국(수납지원센터)	장성업(네트워크연구기술지원단)	천성영(그롭인력개발원)
박종문(국제전화국)	김용범(융합기술원)	한익희(IMO운용센터)
민병훈(BizCRM센터)	이상갑(Infra연구소)	노일철(본사지부)
안이호(국제통신운용센터)	김상현(Service연구소)	

전남지방본부(19명)

이인철(전남고객본부)	정영근(나주)	배진권(호남무선운용센터)
박진수(북광주)	박상수(목포)	류재수(광주유선운용센터)
김광수(수원)	홍우선(강진)	박상운(전남유선운용센터)
고일남(담양)	채희원(해남)	박홍주(호남IP컨설팅센터)
선종민(서광주)	신봉주(순천)	박태규(호남엔지니어링센터)
강성봉(광주)	신호주(광양)	
한승학(남광주)	김응연(여수)	

전북지방본부(9명)

박호남(전북고객본부)	진홍운(남원)	이광욱(정읍)
윤기성(전주)	노용환(익산)	정광모(김제)
임정택(북전주)	채법석(군산)	김형선(전북유선운용센터)

충남지방본부(24명)

오동석(충남고객본부)	장동인(서산)	김경찬(대전)
편홍배(서대전)	윤효중(당진)	박재용(공천)
김명길(서대전지점)	김용길(부여)	윤용재(신탄진)
문학주(유성)	김성용(보령)	강희석(충청무선운용센터)
성기세(세종)	명노승(예산)	이모이세(대전유선운용센터)
엄태원(논산)	신선성(천안)	김종규(충남유선운용센터)
김용섭(공주)	김성수(아산)	오동윤(충청엔지니어링센터)
주현수(홍성)	조규정(남천안)	권승태(충청고객컨설팅부)

충북지방본부(9명)

고제성(청주)	이춘영(금왕)	송창규(제천)
이학승(서청주)	장남전(충북고객본부)	장민철(진천)
신한식(옥천)	최재용(충주)	김종원(충북유선운용센터)

강원지방본부(12명)

이혁중(강원고객본부)	안상진(춘천)	김재식(속초)
박태근(원주)	김종호(화천)	박한수(동해)
엄기현(평창)	윤필성(홍천)	최희동(강원무선운용센터)
박영섭(태백)	권찬승(강릉)	박재호(강원유선운용센터)

제주지방본부(5명)

현성환(제주고객본부)	최태중(신제주)	김희철(제주네트워크)
이치만(제주)	이호희(서귀포)	

2017년 하반기 중학생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선정 및 발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하반기(동계) 중학생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30명을 지역별 박스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선발자 및 예비후보자 명단은 문서정책 자료실이나 Kate 전자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추첨 과정은 KB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 현재 중학교 재학 자녀를 둔 KT 조합원
 - 단, 부장, 센터장, 지점장 이상 제외 (노동조합은 지부장 이상 제외)
 - 본사(사업부서/지원부서 포함) 팀장은 지원 가능
 - 선정인원 : 30명 (신청 마감 후 지역 본부별 선정인원 추첨)
- ▶ 캠프개요
 - 캠프일정 : 2018년 1월 3일 ~ 1월 31일
 - 프로그램 : 실질적 학습효과 및 글로벌 체험 (4주)
 - 어학연수 : 캐나다 정규 스쿨링 프로그램 참여 및 홈스테이
 - 문화체험 : 유명대학(UCLA, UBC), 주요 도시 및 자연 탐방

1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열려, 제13대 각급 조직 대표자 선출 관련 안건 심의·의결



KT노동조합은 2017년 11월 1일 오전 8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7년 제1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7년 각급 조직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가족사랑 유연근무제 시행 및 워킹룸(원격사무실) 운영

가족사랑 유연근무제 시행

- 임신기·육아기·장애 등 부양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40시간 (토, 일 제외) 자율근무
 - 일 최소 4시간(11시~15시) 필수근무
- 시행일 : 2017. 11. 1.



2017년 단체교섭 노사합의(2017.10.10)에 따라 임신기·육아기·장애 등 부양가족 돌봄이 필요한 조합원의 고충해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가족사랑 유연근무제를 시행했다.

▶ 제도 및 운영기준

구분	가족사랑 유연근무	재택근무
근무시간	주 40시간(토·일 제외) 자율 근무 ※ 일 최소 4시간(11시~15시) 필수 근무	9시~18시 ※ 주 3회 이상 사용 불가
근무장소	사무실	자택
사용절차	이용계획 수립(1주일 단위) → 복무신청(사용 7일전, ERP/HR) → 승인	

- 가족사랑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동시사용 불가
- 전 직원 대상의 선택근무제와 재택근무의 대상(스텝부서)은 현행 유지

▶ 적용 대상

구분	적용 기준	확인 방법
임신기	임신 중인 직원	임신확인서
육아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지원(입양자녀 포함)	인사카드
장애직원	장애등급 3급 이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인사카드
가족돌봄 직원	돌봄대상 : 직원·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질병 : 4대(암·심장·뇌질환·희귀난치) 중증환자, 치매 등 - 장애 : 장애등급 3급 이상	병원급 진단서 장애등급 확인서

※ '장애직원'과 '가족돌봄'은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에 따른 유연, 재택근무 필요성은 복무권자가 판단

▶ 시행일 : 2017년 11월 1일자

2017년도 단체교섭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 및 성과보로금 지급

2017년도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소급분 및 성과보로금을 지급했다.

■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 ▶ 임금인상 : 총 연봉 134만원
- ▶ 소급기간 : 2017.1.1 ~ 10.31(10개월)
- 2017.11~12월분은 각 월 정기 급여지급 시 반영하여 지급

▶ 소급항목 : 기준급,

역량급, 성과급(전사/부문/담당/개인),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가산금(현장, 야간, 휴일)

- 소급액은 성과급 지급률 및 복무를 반영한 수당에 따라 개인별 상이

■ 성과보로금 지급

▶ 지급대상 : 합의일 현재 재직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

- 상무보/전문경력직/재직전출자/청경 포함, 임원/계약직 제외

▶ 지급금액 : 1인당 200만원

- 계산기간(2017.1.1~10.10) 중 휴직 및 무급일수 감액하여 지급(성과급 감액기준과 동일)

■ 지급일 : 2017.10.31(화) 별도계좌 입금



2017년 하반기 창업지원휴직 시행



재직 중 창업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개발 및 경력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창업지원 휴직 신청을 시행했다.

▶ 지원자격 : 실근속기간 20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대상분야 : 제한없음(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

▶ 휴직기간 : 1년 6개월 ~ 3년 6개월

- 의무휴직기간: 1년 6개월 (6개월 단위 연장가능)

2017년 단체교섭 조합원 총회 결과... 가협약(안) 91.7% 찬성으로 가결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 2017년 조합원 총회 최종 집계결과, 단체교섭 가협약(안)에 대해 조합원 18,323명 중 16,383명이 투표에 참가, 89.41% 투표율과 찬성 15,027표(91.72%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동조합은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단체교섭은 열정과 끈기로 성과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한 조합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복지, 복무 제도를 혁신하는 상생의 합의안을 타결하기 위해 심도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한 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와 고령, 은퇴 조합원을 위한 적극적인 돌봄 방안을 도입하여 조금이라도 종사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91.7%라는 높은 찬성률로 노동조합의 행보를 믿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7년 제2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법정사유로 긴급자금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시행했다.

▶ 신청대상

- 퇴직연금제(DB형) 가입 직원 중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계약직 제외)

- 연대보증 복지기금 대부자는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시 신청가능 (경영지원실 복지팀과 협의 031-727-4037)

※ 퇴직연금 가입유형 확인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 관리

▶ 신청방법 :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 적립 금융기



관에 직접 신청

▶ 신청유형

- DC형 :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 혼합형(DC+DB) :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 법정인출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참고사항

- 신청가능 금융기관 및 접수처와 준비서류는 아래 [문서/정책 자료실] 관련 첨부파일 참고
- DC형 및 혼합형 전환 주기 : 연 2회(매년 1월, 7월)
- 법정중도인출 전환 주기 : 연 2회(매년 4월, 10월)

2017년 11월 성과급 지급

2017년 11월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했다.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A직(청원경찰 포함)
- C직/Sales직 : 종전 지급 기준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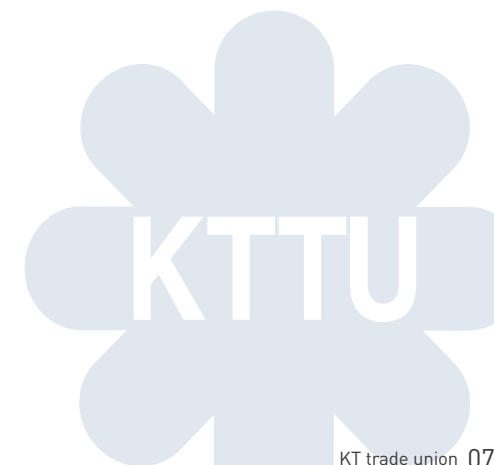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 지급률
- 지급률

- G직 : 125%
- A직 : 105%
- 계산기간 : 2017.10.1 ~ 12.31(92일)

▶ 지급일 : 2017.11.24(금)

※ 지급액 감액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의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위해!

2017 단체교섭



KT노동조합 12대 집행부 3년차의 결실을 맺기 위한 2017년 단체교섭은 어느 해보다 책임 있는 열정으로 진행됐다.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노사는 8월28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한 이래 9월 한 달 간 4회의 본회의를 거쳤고, 임금 및 제도개선, 복지, 단협 등 3개 실무소위를 총19회 개최한 끝에 10월 1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차 본회의 때 정윤모 위원장은 “조합원의 사기를 높이고 현장의 맘과 노력에 보상하는 것이 결국 생산성과 회사발전을 위한 일”임을 강조한 바 있다.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치열했던 2017 단체교섭 결과를 되짚어본다.

현장의견조사로 단체교섭 준비착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현장의견조사로 교섭을 위한 안건 확정에 돌입했다. 전담반은 현장 밀착형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면서 최적의 교섭 요구안을 도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인 8월28일에는 전국 12개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직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하조직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은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한편, 제9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어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 및 단협갱신(안)과 3/4분기 노사협의회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17명의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임금·복지·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임금 5.2% 인상을 포함한 7대 요구(안)를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1차 본회의, 7대 요구 안건 일괄상정

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4일, 2017년도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대 집행부 3년차의 결실을 맺기 위한 여정에 돌입했다. 이날 정윤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사측이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주기를” 당부했고, 회사는 노동조합 7대 요구안의 일괄 상정을 수용했다. 노사는 7일 1차 본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조합의 입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책과 규제를 이유로 임금 5.2%와 성과보로금 300만원 요구 등의 수용 불가 입장을, 복지포인트 70만 포인트 상향·차등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1조 이상의 영업이익 성과를 낸 2016년 실적을 고려해 안을 낸 만큼, 공정한 성과분배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척 없는 공방이 이어지자 노사는 임금 및 제도개선, 복지, 단체협약 등 3개 분야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줄타기, 실무소위원회로 효율적 접근

집중 논의를 위한 실무소위원회는 9월 11일 1차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부터 시작됐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12일 1차 복지 실무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은 복지기금 500억 출연, 대부제도 신설·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326억 출연을 제안, 대부제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복지안건은 수용 불가 대응을 보였다. 다음날 회사는 대부한도 6천만 원으로 확대, 주택임차 대부한도는 4천만 원 상향 등을 제안하고, 동계휴양소 신설도 긍정적 검토의견을 밝힌 반면, 기타 안건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4일 속개된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에서는 회사가 성과보로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은 합당한 배분을 강조했다. 이어 다음날 단체협약 실무소위원회 역시 진전 없이 정회됐다. 18일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측 위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진 가운데 결국 19일 회사는 임금피크 대상자 및 공상자 희망퇴직선택제와 관련,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날 복지실무소위에서 회사는 동계휴양소 운영 등 일부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날 단체협약 실무소위원회

는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9월 21일, 단체교섭 본회의는 지금까지 총 18차례 거듭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25일 실무소위원회에서 회사는 임금 정액 1% 인상 등을 제안해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26일 단협안 신설 및 개정과 관련 논의와 27일 복지 실무소위원회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28일 2차 본회의에서 회사는 변동포인트의 개인 인사평가 차등 폐지와 성과연동 존속 제안 발표 외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사측에 결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2017 단체교섭 가협약 체결

좀처럼 풀리지 않는 교섭의 끈이지만 노동조합은 설득과 압박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한 결과, 10월 10일 오후 2시 단체교섭 3차 본회의에서 마침내 2017년도 단체교섭 가협약이 체결됐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날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전국 12개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협약(안) 내용을 현장에 가감 없이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사기를 독려해 모두 함께 재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이번 가협정(안)의 주요내용은 협약 임금 정액 134만원 인상, 성과보로금 200만원 지급, 사내 근로복지기금 326억 출연 등이다. 또 공통포인트 150만P로 상향과 변동 포인트의 개인성과 차등을 폐지하고,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부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11일에는 12개 지방본부에 중앙상무집행위원을 파견해 가협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현장설명회를 시행하는 한편 12일까지 각 지부 조합원들에게 잠정 합의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드디어 10월 13일, 조합원들은 1만6,383명이 참가한 조합원 총회에서 89.4%의 투표율에 찬성 1만5,027표 (찬성률 91.7%)로 단체교섭 가협약(안)을 가결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단체교섭은 성과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한 조합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복지, 복부제도를 혁신하는 상생의 합의안을 타결하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설명한 뒤 높은 찬성률로 노동조합의 행보를 믿고 지지해 준대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로써 긴 진통을 겪어온 2017년도 단체교섭 가협약(안)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2017 단체교섭 경과



2017년 단체교섭 내용

KT노사는 열정과 끈기로 성과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한 종사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복지·복무제도를 혁신하는 상생의 합의안을 타결했다.

01 임금 분야

- 협약임금**
 - 정액 134만원 인상(평균 2% 수준)
 - 기준급+역량급 832,500원 인상
 - 적용대상: 합의일 현재 재직 직원(G직, A직, C직 및 Sales직)
 - 지급일: 2017.10.31(소급액)
- 성과보로금**
 - 1인당 200만원
 - 지급대상: 합의일 현재 재직 직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 (상무보/전문경력직/재적전출자/무기계약직 포함, 임원 제외)
 - 지급일: 2017.10.31

02 제도 개선

제도 개선

- 희망퇴직제도 개선**
 - 만 56세 도래시 정년 또는 희망퇴직 선택
 - 중대한 공상/신체정신상 장애시 희망퇴직 선택
 - 시행일: 추후 협의 ('18년1분기까지)
- 가족사랑 유연근무제 도입**
 - 임신기·육아기·장애직원, 부양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가족사랑유연근무제·재택 근무 사용
 - 시행일: 2017.11.1
- 가족돌봄 휴직기간 확대**
 - 연간 최대 휴직기간 : 90일 → 120일
 - 적용대상: 직원·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직원
 - 시행일: 2018.1.1
-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 여직원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자동부여
 - 시행일: 2018.1.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단축 근로시간 : 2시간 → 3시간
 - 시행일: 2018.1.1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3일 초과분 무급) → 10일(유급)
 - 시행일: 2018.1.1

03 복지 분야

복지 분야

- 사내근로복지기금**
 - 326억원 출연
 - 시행일 : 2017년 출연
- 대부제도 개선**
 -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부 신설 (2자녀 16학기, 1자녀 8학기)
 - 주택마련/임차대부 통합 및 한도 상향 → '주택자금'으로 통합, 한도 7천만원
 - 생활안정/간급가계자금 통합 및 한도 상향 → '가계안정자금'으로 통합, 한도 3천만원
 - 시행일: 2018.1.1
- 복지포인트 개선**
 - 공통포인트: 130만p → 150만p (+20만p)
 - 변동포인트: 개인성과 차등배치(전년도 영업이익 반영하여 균등지급)
 - 변동포인트 지급기준

영업이익	0.5조 이하	0.5조 초과~1조 미만	1조 초과
지급포인트	65만p	80만p	100만p

 - 시행일: 2018.1.1
- 건강검진비 개선**
 - 50세 이상인 배우자의 건강검진 단가 상향(2018년 기준 196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연간 1인당 15만원 → 30만원**
 - 시행일: 2018.1.1
- 긴급출동보전비 상향**
 - 3시간 이상: 35,000원 → 60,000원
 - 3시간 미만: 17,500원 → 30,000원
 - 지급대상: 통신시설 장애 등으로 근무시간 외 출동한 작업자
 - 시행일: 2018.1.1
- 동계휴양소 신설**
 - 하계 휴양소 운영비용의 50% 내 동계휴양소 신설·운영
 - 시행일: 2018년 4분기부터
- 상조지원 개선**
 - 상조회비 미지원자 가입회 부여 (금번 限)
 - 지원사항: 가입 익월부터 월 12,500원씩 120개월간 지원 (단, 퇴직시 미지원)
 - 시행일: 추후 공지
- 일체복 지급**
 - 트레이닝복, 운동화 지급 (20만원 상당)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
 - 시행일: 2018년 상반기
- 사택제도 개선**
 - 보유사택 매각 및 임차사택 전환
 - 시행일: 즉시



고용안정은 노동조합의 최우선가치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다

KT이엔지코어가 자리한 곳은 테크노벨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판교의 중심. 1986년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로 시작해 2015년 지금의 KT이엔지코어라는 사명으로 변경하기까지 기업은 30년 세월동안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일구어왔다.

“KT이엔지코어는 행정전선망 개발 자금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렌탈 및 통신 위·수탁사업, 별정통신사업, 통합네트워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KT이엔지코어라는 사명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네트워크사업에서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을 지향하고 있죠. 특히 올해는 HRD혁신과 리스크 예방 그리고, 경영품질을 강화하고 전사 혁신 프로그램을 발굴해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와 경영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이엔지코어 노동조합은 회사 창립 이듬해인 1987년에 설립,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93년 입사한 남우형 위원장이 노동조합과 인연을 맺은 건 1999년 5대 집행부 때부터다. 당시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돼, 이후 쟁의국장, 조직국장,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2011년 9대부터 올해 시작된 11대 위원장으로까지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KT engcore 노동조합 11대 집행부
남우형 위원장

구내통신과 NI사업에 관한 30년 역사를 이어온 국내 유일무이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KT이엔지코어의 성장은 또한 KT이엔지코어 노동조합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한 남우형 위원장의 남다른 노력은 9대부터 현 11대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디딤돌이 되고 있다.

“노조가 빨리 설립된 편입니다. 조합원 214명에 오픈샵 형태로 조합 가입률은 100%입니다. 저희 규모가 KT의 100분의 1 정도지만 교육프로그램 등 조직관리에 있어서 재미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요. 1처 3국 6지부로 운영되는 집행부가 소통과 공유를 기반으로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 이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주력 사업이 변경되고 신규 사업의 빈번한 진입과 퇴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남위원장이 노동조합 운영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보다 고용안정이다. 올해 6월 조합임원 선거를 치를 때 그가 내건 7대 공약 가운데 가장 첫 번째도 ‘고용안정 프로젝트 실현’이었다.

“주력사업 변동과정에서 사업구조조정과 인력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랐죠. 그때마다 노사갈등이 있어왔고 생존권투쟁을 해왔습니다. 98년과 99년, 2001년, 2004년, 2009년. 그간 다섯 차례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겪어온 터라 고용안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 판단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용에 버금가는 복지는 교육이예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해 인력육성과 경쟁력 축적을 실천해 가고 있죠. 고용안정 실현, 인적 경쟁력 축적, 삶의 질 향상, 조직문화 정착, 노사문화 완성, 근로조건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선거 때 내걸었던 7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 확보해 희망 넘치는 일터 만들 것

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동체 의식 하나만 보고 왔다는 남위원장에 변화와 혁신을 겪은 이러한 경험들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된 것은 물론이다. 특히 2014년 전대미문의 사기대출에 연루돼 극한의 기업경영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위기 극복을 위해 10대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온몸을 내던졌다.

“조합 활동을 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 고독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2014년 금융권의 부실대출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가기까지 8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시기였는데 임직원과 노사가 뭉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단결해 지금까지 극복하고 끌고 온 겁니다.”

당시 남위원장은 명확한 지식 전달을 위해 직접 지역노조의 사례들을 섭렵해가며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등 한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다. 그는 노사갈등이 있을 때 입장 중심의 교섭보다는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한 교섭을 강조한다. 노사 간 신뢰는 축적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양보도 하고 주장도 하면서 지금까지 온 덕에 경영위



왼쪽부터 남우형 위원장, 신병진 사무처장

기에도 상생의 노사관계가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때문에 남위원장은 입사 때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한 수많은 인연들이 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금껏 동고동락해온 선후배와 경영진, 집행간부들 모두를 누구보다 오래 기억하고 싶다.

이러한 남위원장을 옆에서 지켜 본 신병진 사무처장은 “조합원과 임원 간 완벽하게 짜여진 신뢰를 보노라면 ‘위원장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말한다. 어려운 때나 좋은 때나 늘 발로 먼저 뛰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고 이해시키는 모습이 조합원들에게는 더없이 믿음직스럽다고.

화합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한 남위원장의 바람은 지금 하나로 집약된다. 하루 빨리 법정관리를 탈피하기 위해 회생계획에 필수적인 주력사업을 확보하는 일.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룹 내 명확하고 지속적인 회생사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 내 사업과 일거리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일에 대한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보답할 것입니다. KT이엔지코어 노동조합은 법정관리 조기종결과 기업 생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앞장서서 화합하고 소통하며 활기찬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원들의 흔들림 없는 신뢰의 바탕위에서 정년이 보장받는 회사,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남우형 위원장. 그가 마지막으로 내비친 소망 또한 실현가능한 약속이 될 KT이엔지코어의 그날이 한층 기대된다.

ISSUE & SOCIETY

노동자 청년에게 과연 파랑새는 있을까

한때 근면과 성실의 대명사로 불리던 근로자들. 세대를 지나 근로자의 자식들은 더 이상 산업역군으로 불리지 못한 채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게으른 벼랑이로 치부되고 있다. 근면과 성실만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은 언제쯤 그들의 고달픈 삶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얼마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과거 2004년 당시 고3이던 4년제 대학졸업자 972명을 대상으로 13년 후 30대가 된 현재 직업 만족도를 나타내는, '고교 동급생, 서른 즈음 서로 다른 삶'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다.

보고서는 모두 4가지 유형의 직업만족도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의 고민이 없는 '정규직 안정형'이 62%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니트족이 16%로 뒤를 이었으며, 세 번째로 정규직이라는 버젓한 직장을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고민하는 이른바 '파랑새증후군'이 1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직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살아가는 프리터족도 9.5%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것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파랑새 증후군 그룹이다. 조사에 의하면 파랑새증후군은 근무시간이 길고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현재의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 일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졸업이 늦을수록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파랑새증후군은 입사 초년에 있는 직장인들이 한 직장에 안주하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는 사회초년생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파랑새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으른 벼랑이쯤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월급 12만 원에 짓밟히는 파랑새들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것, 과연 그것이 허황되고 잘못된 꿈일까.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 1932-)의 작품 <파랑새(L'Oiseau bleu)>는 어린 남매인 틸틸과 마틸이 꿈속에서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헤매는 이야기를 그린다. 남매는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꿈에서 깨어나 허탈해 하지만 자신의 방에 파랑새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교훈을 한국적 상황과 결부시키는 것은 왠지 어설피고 거북하다. 동화 속 해맑은 틸틸과 마틸에 비해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고교 동급생, 서른 즈음 서로 다른 삶'에서 파랑새증후군을 겪고 있는 벼랑이들은 주당 평균 42.6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193만7000원을 받는 '정규직 안정형'에 비해 주당 3시간을 더 일하면서도 월급은 12만 원을 덜 받는 고단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 틸틸과 마틸이 행복을 찾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바로 고된 노동 여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조합원들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연간 노동시간은 선진국 대비 최악의 수준이다. 연평균 국내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이나 많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를 선진국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으로 31.8달러에 그쳐 OECD 평균인 46.8달러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눈치 보기 야근을 강요받고 있는지, 기업들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얼마나 노동 강도를 강요받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의 강소국가들은 평균 65달러를 상회하는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 합리화, 비정규직의 높은 최저임금 보장제도 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창의'적 패러다임은 4차산업의 필수 요소

우리나라 경제가 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근면성실하기 때문이란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 정부가 굳이 노동법을 개정해가며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꾼 것은 노동력을 마음 놓고 착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는 것을 새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권력자나 기업가들은 단순히 '일하다'라는 뜻의 '노동(勞動)'만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뜻의 '근로(勤勞)'라는 꿈을 들고 나왔다. 산업역군을 육성한다는 미명 아래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50년 동안이나 노동자에게 강요해온 것이다. 그렇게 50년간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근로'의 패러다임은 회사를 위해 몸바쳐 온 CEO들의 성공담과 뒤섞여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저질 레퍼토리로 변질되고 있다.

고리타분한 우리나라의 노동문화와는 달리 전 세계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노동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닦기 위해 창의성 위주의 인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단축된 근무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는 이미 운명을 고한 노동개념이다. 20세기 초반에나 한때 유행했던 '테일러의 관리론(Taylorism)'은 사람을 노동수단으로만 여긴 채 그저 급료만을 몇 푼 더 주고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려는 저열한 기계적 사고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CEO들의 머릿속을 지배해온 '근로'의 패러다임을 4차산업의 길을 걷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

대량생산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껏 수많은 노동이론과 경영이념이 생겨나고 사라졌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의미의 이론과 더불어 이제는 창의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 달에 15시간을 더 일하고도 12만 원을 덜 받는 파랑새들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고달픈 삶을 피해 방황하는 마틸과 틸틸을 양산할 뿐이다. 인간 중심의 노동환경 안에서 노동자들의 창의적 발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T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번 올림픽은 특히 KT가 선보이는 5G시범서비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역대 가장 혁신적인 올림픽이자 첨단 ICT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는 것만이 아닌 느끼고 체험하는 올림픽으로 변화시킬 KT의 첨단 정보통신기술. 그 노력이 집약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을 평창에서 만났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찾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ICT 올림픽을 만든다

왼쪽부터 평창동계올림픽추진단 운영BU 정연욱(파견), 올림픽기술담당 장성한, 운영BU 문희(파견), 운영BU 장근식(파견), 올림픽PMO팀 황인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이상無

주경기장이 자리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도로 일대는 공사차량들로 분주했다. 올림픽 공식 통신파트너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담당하는 KT는 지금 이곳 평창에서 최종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상태다.

“여기에 현장 엔지니어링 기술이 뛰어난 다양한 운용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올림픽대회통신망은 5개 분야 내에 40여개로 나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게임망·업무망·시설망·IPT 등 ‘유선통신망’, 와이파이·3G·4G·5G·TRS 등 ‘무선통신망’, IPTV·CATV 등 ‘방송중계망’, 주데이터센터(PDC)/백업용데이터센터(SDC)·기술관제센터(TOC)·올림픽보안관제센터·CCTV관제센터 등 ‘ICT시설’, 그리고 관로·선로 등을 구축하는 ‘인프라’. 이렇게 다섯 분야인데, 가건물 형태의 오버레이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은 현재 구축 완료됐고 IBC(국제방송센터) 등 실제 유저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12월말까지 완결할 계획입니다.”

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올림픽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팀 황인준 팀장에 따르면 현재 진행률은 78%. PMO팀은 기술적인 컨설팅 등 협의된 사항이 평창과 강릉 현장에서 방송과 유무선, 기타 시설 분야 통신망으로 어떻게 구축되고 진척되는지를 관리한다.

KT가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파트너로 계약을 체결한 게 2014년 7월. 이후 2016년 4~5월 올림픽 기술담당을 신설해 통신망 설계를 완료하고 그해 11월에는 5G의 테스트베드인 평창5G센터를 오픈했다. 이어 올 5월부터는 5G시범망 상세설계를 통해 10월말

현재 관로와 선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또 그간에는 2016년 2월 첫 테스트이벤트를 시작으로 올해 2~4월까지 올림픽 운영 및 5G 실증에 관한 28번의 테스트이벤트를 거치며 실전에 만전을 기해왔다.

세계 최초 5G올림픽

내년 2월9일부터 17일간 열리는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은 95여개국 약 5만여 명이 참가해 스키, 스케이팅, 봅슬레이 등 7경기 내 102개의 세부 종목을 겨룬다. 곧이어 3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패럴림픽이 기다린다. KT는 경기가 펼쳐지는 69개 장소에 5G시범 서비스를 포함 모든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세계 최초 또는 올림픽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혁신기술이 대거 적용된다.

먼저, 세계 최초로 경기장과 선수촌 호텔의 올림픽 IPTV지상과 채널에 실시간 6개국 외국어 자막 서비스가 적용된다. 또 인천과 평창, 강릉을 오가는 143개 노선 1,200대의 올림픽 셔틀버스에 제공되는 LTE기반 위성 미디어(Skylife LTE TV) 서비스도 세계최초다. 차원이 다른 최초 올림픽을 만드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8,100대의 조직위 및 올림픽 운영 스텝 무전에 적용되는 LTE기반 전국망 커버리지 무전 통화 서비스(TRS), 또 최고품질의 광대역 LTE서비스가 제공되고, 데스크탑 가상화(VDI)서비스로 2,000대 올림픽 업무용 PC의 정보유출 및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올림픽대회 정보시스템과 올림픽 운영 웹사이트, 조직위 업무망 접속 이용자는 클라우드 인증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올림픽대회통신망 시설 전체가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통합 보안관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가급 프리미엄 와이파이 서비스는 물론이다.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적은 인력이 어마어마한 구축물량을 담당했습니다. 저희는 LTE가 당연히 전국 커버리지이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엄청난 거죠. 리우대회 때는 LTE도 한정적이었어요. LTE기반 무전기인 IP-PTT(Push-to-talk)서비스도 올림픽 최초입니다. 테스트이벤트 때 올레 와이파이를 써본 해외선수단이 깜짝 놀라더군요. 속도가 빠른데다 무료이니 감동 받았다고, ‘역시 IT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IPTV 방송 자막에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서비스 됩니다. VDI(Virtual Desktop Interface)는 업무망과 인터넷을 따로 분리해야 보안이 잘 되는데 그걸 하나의 PC에 분리해서 쓰는 기술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보안 인증 서비스도 제공되죠. 뭐니뭐니 해도 가장 핵심은 물론 5G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미래 보여줄 이벤트의 장

이번 올림픽의 밑바탕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는 LTE보다 40~50배 빠르고, 처리 용량도 100배 많다. PMO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장성환 조합원은 평창에서 선보이는 5G 기반 서비스는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다.

“싱크뷰’는 초소형 카메라에 5G통신모듈을 탑재해 봅슬레이 같은 경기를 볼 때 선수의 시점에서 영상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하는 ‘옴니 포인트뷰’는 크로스컨트리처럼 지루한 경기에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볼 수 있죠. ‘360 VR’을 이용하면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인터랙티브 타임슬라이스’는 백여대의 카메라로 찍은 입체 영상을 제공해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점프하는 찰나의 순간을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방송사에서 보내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패드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찍고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 수백 대를 놓고 360도로 찍어서 서버에 올려놓고 내가 볼 때는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보는 건데, 한 대에만 400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5G기술이 있어야만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 5G시설이 들어갑니다. 9개 경기장과 체험관, 스마트폰으로도 체험할 수 있어요. 봅슬레이나 루지 같은 경기는 선수 시선으로 실감나는 음향과 함께 볼 수 있죠. 비인기 종목들이 붐업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5G 버스’도 운행된다. 버스에는 5G시험망을 통해 장애물과 다른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동 중에도 대용량 3D 영상을 받을 수 있는데, 평창과 강릉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 중이다.



대회 기간 중 가장 바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역시 국제방송센터(IBC)다. 방송사 입주를 기다리며 구축이 한창인 넓은 내부만큼 밖에서 본 규모는 엄청나다. IBC구축총괄담당 유인성 팀장은 IBC는 총 11개 구획으로 나뉜다고 했다.

“IBC는 가로 140m 세로 300m로 축구장 6배 크기입니다. 12월말까지 통신망을 구축하고 내년 1월 9일부터 올림픽 모드로 전환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총 180여개 방송 사업자와 80여 개 방송사가 현지 제작합니다. 그때는 방송국 관계자 6천여 명이 24시간 근무에 돌입하죠.”

IBC는 1차적으로 신호를 모아 감시 분배하는 TOC(Technical Operating Center)와 TOC의 회선을 받아 LDR로 전송하는 MCR(Master Control Room), 그리고 각 방송사로 신호를 전달하는 LDR(Line Distribution Room)으로 구성된다. 중계차로 현장에서 제작하면 TOC, MCR, LDR을 거쳐 각 방송사로 신호가 보내진다. 올림픽주관방송사(OBS)에 비용을 지불하고 방송 중계권을 보유한 방송사들이 IBC 내 공간을 임차해 방송사별로 작은 규모의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다.

계속되는 KT의 도전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수고는 남다르다.

“권역으로만 해도 평창과 정선에 걸쳐 조성된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와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로 나뉘는데 평창에는 설상종목이 강릉에는 빙상 종목이 열립니다. 하루 이동시간만 해도 길어요. 유저통신망 개통 구축을 단 두 명이 하고 있고, 올림픽 관계자가 도착하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도로, 올림픽권역까지 무선망을 한 명이 다 구축합니다. 힘들지만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죠.”

장성환 조합원의 경우 성화봉송 같은 큰 이벤트 때면 협조문과 전화를 전국에 걸쳐 혼자 소화해야 한다. 요즘 같은 때엔 하루 200여 통의 전화를 일일이 반복적으로 응대한다.

“언젠가 정선에 영하20도 날씨가 눈이 내렸는데, 눈을 단단하게 다져야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스노모빌이 눈을 다지다가 통신망을 싹 끊어버린 겁니다. 기후여건 등으로 근무 외 출동해야 하는 이런 경우 참 힘들어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이들이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이후의 우려도 조심스레 자리한다.

무선기술팀 전인재 조합원은 “여기에 온 수백 명은 전국에서 기술과 외국어실력 모두 뛰어난 마이스터”인 만큼, “정규발령으로 온 분들의 경우 시기적으로 돌아 갈 근무 포인트가 없다는 데 대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베뉴 텔레콤 매니저로 평창선수촌지점 소속 장근식 조합원은 앞으로 현장에 투입될 조합원들의 숙소 사정을 걱정했다.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업무상 기자들 VOC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외국기자들은 와이파이에 대해 놀라워해요. 보람 있죠. 단지 1년 전에 온 저희와 달리 앞으로 투입되는 분들의 숙소가 걱정됩니다. 지금 모두 합숙 중이고 수련관에서도 2실정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즌이 될수록 숙소사정이 어려워 질 겁니다.”

CS컨설팅 지원으로 얼마 전 슬라이딩센터에 오게 됐다는 정연욱 조합원은 “내년 본 경기 때는 CS컨설팅 조합원 200명이 더 오는데 업무특성상 식비와 유류비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때문에 “개선이 안 될 경우 고객최우선분부를 통한 개통·AS 생산성 부분의 보정 등 확실한 체계적 방안을 속히 마련하는 게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두달 반. KT는 이번 동계올림픽의 5G규격을 기반으로 2019년 세계 최초 5G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로 맺어질 멋진 겨울을 기다리면서 평창의 성공이 향후 5G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그날까지 KT의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응원한다.



2017년 단체교섭 합의내용 안내

(임금/ 복지/ 제도개선)

KT노사는 열정과 끈기로 성과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한 종사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복지·복무제도를 혁신하는 상생의 합의안을 타결...

네~ 잘 알겠는데요.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요약해 주시면...

요약이요? 네 그럼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할게요!

임금

협약임금은 정액 134만원, 2%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기준급+역량급 = 832,5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성과보로금은 200만원 지급됩니다.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26 억원 출연

대부제도는 표를 참고하세요!

대부제도 개선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부 신설 (2 자녀 16학기, 1 자녀 8학기)
주택마련 임차대부	통합 및 한도 상향 (주택자금으로 통합, 한도 7천만원)
생활안정 긴급가계자금	통합 및 한도 상향 (가계안정자금으로 통합, 한도 3천만원)

복지포인트 개선
공통포인트 : 130만→150만(+20만)
변동포인트 : 개인성과 차등패지

건강검진비 개선
50세 이상 배우자 건강검진 단가 상향
연간 1인당 15만원 → 30만원

당신 덕에 검진도 싸게 받네~

긴급출동보전비 상향
3시간 이상 : 35,000원 → 60,000원
3시간 미만 : 17,500원 → 30,000원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긴급출동 나가 볼까?

동계휴양소 신설
휴식보장을 위한 동계휴양소를 새로 만듭니다.

상조지원 개선
상조회비 미지원자에게 이번엔 한해 가입 기회 부여.

나도 이번 기회에~

일체복 지급
20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지급합니다.

사택제도 개선
보유사택 매각 및 임차사택 전환을 실시합니다.

제도 개선

희망퇴직제도 개선
만 56세 도래 시 정년/희망퇴직 선택

중대한 공상/신체정신상 장애 시 희망퇴직 선택

가족사랑 유연근무제 도입
임신·육아·장애·부양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연/재택 근무

일의 능률이 쑥쑥~

가족돌봄 휴직기간 확대
연간 최대 휴직기간 : 90일 → 120일

나를 위한 제도네~

저절로 엄지척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여직원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자동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6 주 이후 단축 근로 2시간 → 3시간

먼저 갑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5일(3일 초과분 무급) → 10일(유급)

저도 갑니다!

저건 나도 가능하네?

파이팅!

잘 보셨죠? KT 노조는 계속 함께 달려갑니다.



우정의 어울림! 화합의 두드림!

2017 KT그룹 노사공동 동호회
한마음축제 개최

KT그룹인의 사기 진작과 Single KT 강화를 위한 'KT그룹 노사공동 동호회 한마음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9월 22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KT와 그룹사, 노동조합 및 동우회에서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연출하며 화합과 발전을 다졌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이날의 진정한 MVP였다.



탁구와 족구 40개 동호회 본선 참가 3개월 전부터 예선돌입

오전 9시 30분. 이른 아침 전국에서 모인 KT가족들이 대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개회 전부터 응원석과 선수단 사이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기가 느껴졌고, 노동조합 사무총장, 경영관리부부장, 경영지원실장, KTIS사장 등 내빈 소개에 이은 KT노사대표의 공동개회선언으로 드디어 축제의 막이 올랐다.

황성관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한데 모은 노사공동 동호회 한마음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KT그룹은 선배들의 노력과 발자취를 통해 많은 도전을 이기고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도 “노사 모두가 더욱 단결 화합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대산 경영관리부부장은 “KT식구들이 한데 모여 어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KT와 노동조합, 퇴직한 선배님들까지 모여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가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된다”며 “KT그룹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전으로 하나 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한마음으로 뭉쳐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행사가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화합의 자리로 계속 발전하며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노와 사, 동호회와 그룹사 대표선수 4명은 경기규칙을 지키며 페어플레이를 약속한다는 참가자들의 결의를 담아 일동이 선사하고, 뒤이어 KT위즈 야구응원단이 출현해 참가자 모두와 신나는 음

악에 맞춰 몸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또 경기 준비와 조 추첨이 진행되는 동안 임원단은 각 섹터를 돌며 응원단과 선수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모두가 승리자인 화합의 한마당

이번 한마음축제 행사는 탁구와 족구 두 종목 경기로 치러졌다. 3개월 전부터 지역별 예선을 거쳐 이날 본선에 오른 종목별 최강 각 20팀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승부를 겨뤘다.

추첨을 통해 A-E조로 나뉜 각 지역별 대표 선수들은 탁구는 실내체육관, 족구는 외부 특설코트에서 가볍게 몸을 풀며 불꽃 튀는 조별리그 예선전을 시작했고, 족구가 한창인 경기장 한쪽에서는 페이시펜팅을 하려는 참가자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

환호와 박수가 섞인 열정적인 응원 속에 대략적인 경기 윤곽은 점심시간 이후에 드러났다. 21점 단세트로 진행된 족구는 KTS남부가 부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행운을 거머쥐면서 강북과 전북이 4강에 올랐고, 탁구는 전남과 부산, 본사와 KTS남부가 준결승에 올랐다.

단식2경기과 복식1경기로 치러진 탁구 준결승에서 전남은 2:0으로 비교적 쉽게 결승에 진출한 반면, 본사와 KTS남부는 듀스를 거듭했고 2:2 접전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13:11로 잡은 KTS남부가 결승에 올랐다.

특히 4연승 팀끼리 맞붙은 전남과 부산의 탁구 준결승은 엄청난 응원 속에 전남이 시작부터 일방적으로 경기를 앞서 쉽게 마무리 짓는 듯 했지만, 듀스에 듀스를 거듭한 가운데 결국 단·복식을 휩쓸며 부산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과 3, 4위 결정전에 앞서서는 사내 영상제작모임인 '필라멘트'에서 제작한 KT의 역사를 담은 영상 관람과 KT위즈 야구응원단의 활기찬 공연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드디어 탁구 결승이 시작되고, 전승의 기세를 몰아 전남이 먼저 단식1경기를 가져갔지만 KTS남부에 복식을 내주며 1:1 스코어를 기록, 이제 단식2경기에 최종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장내에는 손에 땀을 쥐는 긴장과 탄성이 반복됐다. 1,800명의 KT인이 참가해 100일 전부터 치러진 탁구 경기의 최종 우승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온 시선은 코트 위 두 선수에게로 집중됐다. 긴 랠리를 거듭하며 명승부가 이어지기를 여러 번, 승리는 결국 전남에게 돌아갔다.

탁구에 이어 체육관에서는 강북FC축구회와 KTS남부축구회의 축구 결승이 곧바로 진행됐다.

축구 역시 결승전다운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는데, 동점에 동점

을 거듭했지만 KTS남부의 조직력에 전북이 3:0으로 무너지면서 KTS남부에 아쉬운 우승을 내줬다.

지속적인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길

마지막 순서인 시상식을 남겨 둔 가운데, 황성관 사무총장은 “한마음축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정을 나누며 하나 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느낌을 받았다”며 소감을 전한 뒤 “이 행사가 지속적인 축제로 거듭나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폐회 인사를 대신했다. 경영관리부문장 또한 “열심히 뛰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힘도 나고 뿌듯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갖게 돼 감격적이고 무엇보다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의 에너지를 통해 더욱 활기찬 그룹으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는 소감과 당부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전했다.

이어 우수한 전남한마음탁구회와 KTS남부축구회에 트로피와 상금, 우승기가 수여되는 등 수상팀들의 시상을 끝으로, '2017 KT그룹 노사공동 동호회 한마음축제'는 오후5시경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총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 그룹사, 노동조합, 동우회에서 탁구와 축구 각 20팀의 동호회가 경기에 참가했다. 총 980만원의 상금이 마련돼 우승팀에 100만원, 준우승 두 팀에게 70만원, 3위 세 팀에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고, MVP 5명과 팀을 리더십으로 이끈 감독상 5명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또 SNS오픈채팅방 등 이벤트 참여를 위한 푸짐한 경품 추첨도 마련돼 우승팀 맞추기 당첨자 2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워치, 행운권 당첨자 2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LG블루투스 이어폰, 아차상의 기관 2팀에게는 참가자 전원 상품권이 지급됐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구급차와 간호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책임자를 운용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 마칠 때까지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마무리됐다.

2017 KT그룹 노사공동 동호회 한마음축제 팀 수상내역

탁구

- 우승 : 전남한마음탁구회
- 준우승 : KT노조본사탁구회 / KT남부탁구회
- 3위 : 본사IT탁구회 / KT충남탁구회 / 부산연합탁구회

축구

- 우승 : KTS남부축구회
- 준우승 : 전북kt족구단 / 강북FCkt족구회
- 3위 : 본사서포터즈 / 서부족사모 / 전남두발로족구회

MINI INTERVIEW



김연정(KT한마음전남탁구회)
플랫폼사업기획실 소프트웨어개발단



- 팀 우승 주역으로 MVP 영예

“10년 째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하고 있어요. 볼을 잘 넘기는 편인데, 오늘 경기에 랠리가 많아서 다들 재미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KT의 이런 행사가 20년 전 쯤에 있었는데,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더없이 좋네요. 여직원이 별로 없고 결승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다 보니 제가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내가 지면 끝이고 이기면 우승'이라, 긴장은 됐지만 끝까지 집중했죠. 경험으로 자신감을 가졌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기회를 마련해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전 세계 AI 전쟁

인공지능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AI 산업의 주도권 전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스마트와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며, 우리나라는 KT를 비롯한 이동통신과 포털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 인공지능 TV 기가지니 |

전 세계 AI를 주도하는 구글, IBM, 애플

전 세계에 불고 있는 4차산업의 열풍 그 중심에는 AI(인공지능)가 자리 잡고 있다. 가정에서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시작으로 차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교통 혁명을 주도할 자율주행, 의료산업의 획기적인 흐름으로 주목 받고 있는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AI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이다. 구글은 개인비서 서비스 개발사인 클레버렌스와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 등 11개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애플 역시 AI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인 래티스 데이터, 얼굴인식 시스템 개발업체인 리얼페이스 등 다수의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미래 AI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AI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보이고 있는 영역은 헬스케어다. 얼마 전 공신력 있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중의 한 곳인 CB인사이드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100개 기업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으로선 유일하게 루닛(Lunit)이 헬스케어 분야 11위, 인공지능 기반 의료진단 관련 기업 중에선 7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했다.

헬스케어 AI는 의사를 대신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개발하

는 데 활용된다. 예전에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데만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했다. 하지만 AI를 이용하면 방대한 양의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종합해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른 시간 안에 판별해낼 수 있다. 신약개발과 임상을 거쳐 20년이 걸리던 시간을 AI를 통해 불과 3~4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 헬스케어 AI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 역시 미국의 IBM이다. IBM이 개발한 AI '왓슨'은 의학저널 300종, 교과서 200종 등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암 환자를 진단하고 성공 가능성이 큰 치료법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른 상태다. 왓슨은 국내 종합병원에서도 도입되어 암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헬스케어 AI에 대한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드는 얼마 전 “지난해 전 세계 헬스케어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88건으로 전년에 비해 29%나 늘었으며 다음해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케어 AI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79억888만 달러(약 9조6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무려 52.7%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는 셈이다.

글로벌 시장을 향해 KT가 달려간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군은 포털과 이동통신사를 꼽을 수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올 한 해 동안 각각 1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 이상의 굵직한 투자를 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포털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IT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곳은 KT다. KT의 '기가지니'는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10만 명에 이어 출시 7개월 만에 20만 명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T는 기가지니의 성공에 힘입어 국내 체류 외국인을 겨냥해 영어 버전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KT는 또 AI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와 인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 1월 조직개편에서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A테크센터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AI 테크센터에는 72만여 개의 GPU 코어가 집적된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으며 제휴사와 함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A테크센터에선 현재 40여 건의 금융 서비스와 네트워크, 미디어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다.

KT는 또 AI 서비스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AI 프로세스 시스템 TF팀인 기가지니사업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전략 수립부터 기술 개발, 사업모델 발굴,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AI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30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해외 협력 또한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초 '기가지니'를 선보이며 국내에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TV 시대를 열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차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글로벌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KT는 얼마 전 열렸던 '2017 샌프란시스코 모바일산업 박람회'를 통해 현지 AI 파트너 기업인 '사운드 하운드(SoundHound)'를 공개하며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를 선언했다. 2005년 설립된 사운드하운드는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엔진 개발 전문기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자동 대화인식(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와 자연어 이해(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등 음성 관련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KT는 사운드하운드에 500만 달러(약 56억4,000만원)를 투자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KT가 사운드하운드와 협력을 맺은 이유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STM(Speech-To-Meaning) 기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STM은 다양한 도메인의 정보를 결합해 한꺼번에 결과값을 내놓는 집단AI(Collective AI) 기술로 복잡한 질문에도 시간 지연 없이 답을 척척 내놓는 첨단 기술이다. KT는 이번 사운드하운드와의 협력을 통해 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운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대중문화에 몰아치는 ‘올로’ 바람

‘올로(YOLO.You Only Live Once)’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용어다. 전 세계로 퍼진 이 말은 유행에 민감한 국내에서 이미 라이프스타일부터 방송문화계까지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며 일상을 파고들었다. 개인의 삶이 지향하는 긍정적 면과 소비를 부추긴다는 염려가 공존하는 ‘올로’ 열풍을 짚어본다.



한번 뿐인 인생

올로는 북미에서 시작된 문화다. ‘인생은 한 번뿐. 현재를 사랑하고 즐기자’는 의미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올로족’이라 한다. ‘올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1년 캐나다 출신 힙합가수 드레이크(Aubrey Drake Graham)가 앨범 보너스 트랙곡 ‘더 모토(The Motto. 좌우명)’에 가사로 쓰면서다. 이후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2분짜리 홍보영상에서 “YOLO, Man”이라 남겨 관심이 급증해 급기야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등재되었다.

국내에서는 t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에 이 용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픈 대중심리를 파고들면서 방송가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행하고 일하며 휴식도 즐기는 올로라이프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OtN ‘섬총사’와 ‘주말엔 숲으로’, KBS2 ‘배틀트립’, On Style ‘다이아’의 올로트립, JTBC ‘효리네민박’ 등 올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청자는 대리만족하고 자신의

로망을 깨우며 적극 동참한다.

‘꽃보다’시리즈에서부터 농어촌에서 느리게 살아가는 ‘삼시세끼’, 휴양지 발리 인근 섬에서 한식당을 차려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윤식당’까지. 감성과 트렌드를 섬세하게 버무린 나영석PD의 프로그램은 시즌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무엇보다 올로족에게는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 즉 여행 중 한 곳에 얼마의 기간 동안 머물면서 현지의 문화를 만끽하고 살아보는 방식이 유행인데, ‘윤식당’이나 ‘섬총사’는 이러한 일명 ‘살아보기 예능’의 대표적인 예다.

사실 국내 올로 열풍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힐링’이나 ‘느리게 살기’ 등의 사회문화적 현상의 연장선에 있다. 90년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등장해 유명해진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카르페디엠(carpe diem)’, 북유럽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휘게(Hygge)’,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 행복과 자유를 느낀다’는 ‘미니멀리즘’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올로, 충동적 소비 혹은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

‘올로’가 이 시점에서 공감을 얻게 된 사회적 배경은 뭘까. 비평가들은 획일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욕망을 억누르고 미래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가치를 살려 현재를 즐기는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 취미와 자기계발을 위해 행복한 소비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라 진단한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는 희망 없고 불안한 미래 때문이다. 올로라이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어쩌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난도 교수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행한 소비 트렌드 분석서 <트렌드코리아2017>는 ‘올로라이프’를 ‘1인 경제’, ‘미니멀리즘’ 등과 함께 올해의 키워드로 꼽았다. 1인가가 증가하는 현대에 각자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쉽’이라는 트렌드와 맞물려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문화로 이어진다. 고가의 명품 대신 식료품, 향수, 애완동물 간식 등 자기만족과 가치 소비에 중점을 둔 이른바 ‘스몰 럭셔리(Small Luxury)’나, ‘포켓몬GO’처럼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특별한 자신만의 경험과 의미를 찾는 ‘경험 is 원들’같은 자기 지향적 소비 행위가 그 예다.

올로 문화를 주도하는 20~30대는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끝도 모를 장기불황 속에 기성세대처럼 절약해 은행이자를 늘리고 집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 암담한 미래에 투자하니 지금을 즐긴다. 취업 준비보다는 1년간 세계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쓴다. 미디어 속 올로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위로 받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 기업은 이를 상품화시켜 서비스로 판다. ‘올로’는 홈쇼핑사들이 밝힌 2017년 상반기 히트 상품 키워드 중 하나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올로를 미숙하고 무모하며 치기어린 행동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조롱, 또는 즐기고 보자는 삶이 자칫 허무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염려의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 영미권에서 ‘올로’는 무모한 행위를 할 때 외치는 감탄사로 사용된다.

언젠가 MBC ‘무한도전 올로특집편’에서는 한도금액 모르는 신용카드를 마음껏 쓰다 멤버들이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반전에 시청자는 웃었지만 유재석이 ‘올로 잘못하다 골로 간다’고 한 말은 생각의 여지를 남겼다.

드레이크는 자신의 노래 속에서 성공한 힙합 가수로 벌어들인 2,500만 달러의 돈을 뽐내고 순간적 쾌락을 즐기며 이렇게 읊조린



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게 내 좌우명이야. 올로(You only live once. That’s the motto, nigga! YOLO!)”.

300억에 가까운 돈으로 과소비를 즐기는 드레이크의 올로와 궁핍한 청춘의 올로는 분명 다를 수 없다. 하지만 올로는 가지는 못가지든 나름의 판단 기준에 따라 형편에 맞는 삶의 태도로 작용한다. 소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라는 의미가 커다란 울림으로 남아있다.

자신과 현재를 지향하는 올로라이프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쾌락만을 추구하며 충동적으로 살자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지금의 올로 열풍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패와 고통도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자는 긍정의 메시지이자,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양의 올로를 받아들이거나 감당할 수 없다. ‘자유’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듯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올로’를 해석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 뿐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





1 2

산이 거기 있기에, 그곳으로 간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

모처럼의 여유 시간을 여행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휴양이나 관광 등 여행의 목적과 방식도 다양하다.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 올레길, 히말라야 트레킹 등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걷기 여행은 기존의 여행과는 다른 만족과 기쁨을 선사한다. 육체적 피로가 정신적 회복과 심리적 치유로 돌아오는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분주한 일상과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천천히 걸다보면 잊고 있던 본연의 나 자신과 만나게 될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미로 여러차례 등산을 꼽았다. 히말라야도 네 번이나 다녀왔다. 라다크,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랑탕 등 해발 5,900미터 고지까지 올랐다고 전해진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히말라야로 떠났다가 대통령 탄핵 소식에 급거 귀국한 일화도 유명하다. 그때 못다한 트레킹을 작년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도 사랑한 히말라야, 그 매력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보자.

Travel Tip

네팔 여행 기본 정보

네팔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 발급 받거나 카트만두 트리부반국제공항(Tribuvan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도착 비자로 받을 수도 있다. 관광비자는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발급 받는 것이 좋다. 각각 15일(US\$25), 30일(US\$40), 90일(US\$100) 비자가 있다. 비자 발급용 사진 1장이 필요하다. 인천에서 네팔 카트만두까지는 대한항공이 주 4회 직항편을 운항한다. 비행에는 약 7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중국남방항공과 홍콩을 경유하는 캐세이퍼시픽, 네팔항공은 10시간 40분 이상이 걸린다. 네팔 시간은 우리보다 3시간 15분이 늦다. 대부분의 국가가 1시간 단위로 시차를 정하는데, 네팔은 15분 단위다. 네팔이 인도와 분쟁을 겪으면서 인도보다 15분 빠르게 표준시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통화는 네팔 루피(NPR)로 1루피는 우리 돈 11원 정도다.

1. 안나푸르나 2. 짐을 싣고 이동중인 당나귀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한 기본 준비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서는 트레킹 허가증(TREKKING PERMITS)과 트레킹정보관리시스템(TIMs)이 필요하다. 카트만두에 위치한 네팔 관광청(NTB)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트레킹에 이견시협회(TAAN)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안나푸르나를 목적지로 정했다면 곧장 포카라로 이동해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포카라 시내에 있는 안나푸르나 보존구역 사무소(ACAP) 또는 네팔 관광청에서 트레킹 허가증과 TIMs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TIMs 카드는 가이드나 포터 없이 혼자 여행할 경우 그린 카드, 가이드나 포터 동행 시에는 블루 카드를 발급한다. 현지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폭풍, 안개, 기온, 해발 5,000미터 고산지대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환경과 문화적 이해를 위해 트레킹 포터나 가이드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 안나푸르나 트레킹 허가증은 2,000루피, 콤부와 랑탕 지역은 각각 3,000루피, TIMs 블루 카드는 1,000루피, 그린 카드는 2,000루피다. 각각 여권용 사진 2장이 필요하다.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Great Himalaya Trails)

네팔은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트레킹 루트의 본거지다. 그레이트 히말라야 트레일은 서쪽의 홀라와 다콜라에서 동쪽의 칸첸중가까지 네팔을 뒤덮는 광범위한 트레킹 구역이다. 해발 59미터의 테라이 지역에서부터 해발 8,848미터의 에베레스트까지 다양한 루트를 자랑한다. 그 가운데 3대 주요 트레킹 구역은 안나푸르나, 콤부(에베레스트), 랑탕 지역이다.

히말라야 14좌의 위용, 안나푸르나(Annapurna)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중부에 줄지어선 고봉이다. 길이가 무려 55km에 달하고, 최고봉인 안나푸르나 1봉은 높이가 8,091미터로 히말라야 14좌 중 하나다.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는 고도에 따른 부담이 적고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현지인 마을, 그리고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설산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여행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 히말라야라는 웅장함에 두려움을 가진 초보자도 도전 가능하다.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인기 트레킹 코스는 안나푸르나 로얄 트레킹이다.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8172m)와



1. 푼힐 전망대
2. 안나푸르나 당나귀
3. 에베레스트
4.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5. 랑탕 트레킹 도중 만난 타랑족

1

마차푸차레(6,993m)를 조망할 수 있는 푼힐 전망대에 오른 후 아름다운 거봉들을 벗삼아 산길을 거닐 수 있다. 다랭이 논을 따라 만나게 되는 네팔 사람들의 미소가 한없이 정겨운 코스다. 고산병의 걱정도 적으며 매력적인 풍광을 지니고 있어 처음 히말라야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코스는 안나푸르나 산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백색의 산맥에 안기는 트레킹 코스다. 계단식 구릉 지대에서 깊은 협곡 지대를 통과하면 마치 설산에 둘러싸인 원형극장이 동실 떠있는 듯한 풍광이 나타난다. 안나푸르나 1봉(8,091m)의 남벽을 시작으로 안나푸르나 남봉, 강가푸르나, 안나푸르나 3봉이 이어지고 등 뒤로 마차푸차레와 히운출리가 우뚝 솟아 360도의 대전망이 펼쳐진다.

Tip 포카라는 안나푸르나로 가는 첫 관문이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는 약 200킬로미터, 비행기로 30분 정도가 걸린다. 투어리스트 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험준한 산악 지역을 8시간 이상 달려야 한다. 포카라에서 푼힐 전망대(3,210m)를 거쳐 트레킹 종료 지점인 페디(1,130m)까지 일주일이면 안나푸르나 로알 트레킹을 마칠 수 있다. 포카라에서 힐레(1,430m), 푼힐을 거쳐 안나푸르나 원정대의 전진 베이스캠프(4,130m)까지 가는 ABC 코스는 약 9일 정도가 소요된다.

2



3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눈 앞에, 콤부(khumbu)

콤부 히말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 주변을 통칭한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 트레킹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대표하는 클래식 코스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초유와 마갈루, 해발 8,000 미터가 넘는 연봉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며 세계의 지붕으로 향하는 이곳은 전 세계 트레커들의 로망이다.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장엄한 풍경을 선사하여, 트레커라면 한번쯤 꿈꿔보는 궁극의 목적지다. 에베레스트 트레킹 중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눈을 사로잡는 미봉인 탐세르쿠와 아마답르람을 볼 수 있다. 세르파 마을에서는 네팔 고유의 순수한 전통문화를 만나 볼 수 있다. 야크와 고요한 바람, 거대한 빙하, 오직 히말라야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에베레스트 지역의 환상적인 파노라마 뷰를 볼수있는 곳은 칼라파타르(5,643m)다. 에베레스트를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칼라파타르에선 잡힐 듯 낮게 뜬 구름 사이로 세계적인 고봉 로체(8,516m)와 늑체(7,889m)의 장엄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4



5

Tip 루클라는 네팔 동부, 콤부 히말라야 트레킹의 관문이다. 카트만두에서 루클라까지 경비행기로 30~4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루클라행 항공편은 공항 사정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결항이나 연착이 잦다. 루클라 마을에서 시작해 팍딩(2,610m), 남체(3,450m), 텡보체(3,860m), 덩보체(4,410m), 로부체(4,940m), 고락셀(5,140m)을 거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5,364m)와 칼라파카르까지 가는 코스다. 약 2주일이 소요된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특유의 풍광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계절은 가을이다. 보통 8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가 가장 좋다. 다음으로 3월 15일에서 6월 15일까지 봄철이면 히말라야 산구의 파노라마가 파란 하늘 아래 선명하게 펼쳐진다.

히말라야의 진주, 랑탕(langtang)

랑탕 히말은 카트만두 북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다. 네팔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거대한 규모의 숲과 다양한 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안나푸르나와 에베레스트 지역보다 덜 붐벼 고즈넉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1949년 국인 탐험가 티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유명해졌다. 랑탕 밸리 코스는 랑탕 계곡의 장대함과 봄이면 하얀 설산 아래 활짝 피어난 꽃들의 향연, 체르코리(4,984m)에서 보이는 랑탕 리롱(7,245m)봉이 트레커에게 잊지 못할 황홀경을 선사한다. 양옆으로 만년설에 덮인 산이 둘러싸고 있는 계곡을 건너는 여정으로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알차게 히말라야와 네팔을 즐길 수 있다. 랑탕 계곡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녹음이 짙고 동식물이 풍부해 조류나 꽃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특히 추천하는 코스다. 산을 오르는 길에 티베탄, 타랑 부족의 마을을 둘러보고 랑탕 리롱과 북서쪽으로 펼쳐지는 가네쉬 히말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티벳 불교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다른 지역보다 소박한 산간 마을의 정취를 만날 수 있다.

Tip 랑탕은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중 카트만두에서 가장 가깝다.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 샤브루베시까지는 차로 8시간 걸린다. 해발 1,410m의 샤브루베시를 출발해 하루 7~8 시간씩 걸으면 랑탕 밸리 코스의 끝인 갠진 고포(3,850m)까지 꼬박 3일이 걸린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힌두교 시바신의 성지인 고사인쿤드(4,380m) 호수를 둘러 순다리잘(1,460m)로 내려와도 좋다. 랑탕 밸리 코스는 일주일, 고사인쿤드를 포함하는 코스는 보름 정도 걸린다. 4월이면 네팔의 국화인 랄리 구라스가 피어나 천상의 화원이 펼쳐진다.

Voices of Readers

고객의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업고객본부 통신고객팀 김성겸

매번 소식을 통해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위해 더욱더 풍성해질 소식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부산고객본부지부 CS지원부 백병철

소식지를 받아 볼때마다 유익한 정보로 알차게 꾸려져있어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카툰을 통해 쉽게 전달되는 회사정보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나올 소식지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고객본부지부 사업지원팀 정재선

이번 소식을 통해 노모포비아 자가 테스트를 하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연습을 하면서 노모포비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재밌는 정보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전략본부 광고팀 한영근

여름휴가 시즌을 마치고, KT 사무들의 찬란했던 여름 휴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하는 방법을 배웠네요^^ 그리고 UCC 글로벌 봉사단을 통해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곳곳이 '공유와 나눔'을 하는 모습에 감동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 '길'을 통해 한번 더 돌아 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서무선운용센터지부 코어망제어팀 이아람

이번 소식을 통해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KTTU 카툰을 통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 후기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가족도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한 소식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부 영업부 SMB고객팀 김병덕

다양한 주제가 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됨으로써 영업활동은 물론 회사 생활에 활력이 됨을 느끼고, 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직장생활을 통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Tip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유무선사업본부 무선기술기획팀 김수연

32호에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많아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선 이번에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 선발되어 9월말 부모님께서 제주도로 가시는데 관련 기사가 나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가보고는 싶은데 최근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하여 고민이었는데 남부쪽도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겠네요.

본산지부 경제경영연구소 이창섭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의 일상과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한 '새희망의 길'을 늘 챙겨보는 애독자입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휴가후기를 읽으면서 마치 저도 다시 한번 휴가를 떠난듯 기분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한 정보와 생동감 넘치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새희망의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북광주지부 영업부 C&R팀 김양향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사연이 리얼하게 나와서 매달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MO 운용센터지부 Cloud서비스운영팀 김성훈

여행칼럼 '길따라머따라'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라오스라는 동남아 여행지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지만, 첫 하이라이트 문구에서 여행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확 눈에 들어오는 점이 좋았습니다. '여행은 빨리빨리 인증샷 찍고 돌아오는 행위를 넘어, 내가 있던 자리를 응시하는 과정이다' 이 문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눈에 자극적이고 멋진 풍경 뿐만 아니라 쉬어가는 여행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KTTU QUIZ

					세로2				
		세로1							
	가로1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가로 1 KT의 5G 기반 서비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과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은?(18페이지 참고)

세로 1 내게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TV로 출시 5개월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한 KT의 핵심 상품은?(27페이지 참고)

세로 2 히말라야를 대표하는 클래식 트레킹 코스로 8,848m 세계 최고 봉의 명칭은?(33페이지 참고)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그 숨길수 없는 가치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웨딩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조사브랜드입니다. 고객님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조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다운플랜의 차별성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정직한 상조회사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KT그룹 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조회비 100% 금융기관에 적립!
상조회비 원금 모두가 보존되는 상조회사는 전국 5%도 되지 않습니다.
- 운영비는 최소로, 서비스 비용은 최고!
일반 상조회사는 상품금액의 30% 이상이 운영비로 다운플랜은 상품금액의 5% 내외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추가요금은 근절, 음식비/사용료 등 비용 절감은 최고!
- 다운플랜 전화 한 통화로 전국 800여개 웨딩홀을 한번에 checking!
- 철저한 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KT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